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생명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흔히 성소를 생각하면 성직자, 혹은 수도자의 길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떠올립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맞는 표현이며 성소 주일의 여러 행사 또한 성직자, 수도자를 지망하는 성소자들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되새길 수 있는 성소 주일은 우리 모두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법 제2권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다루는데 제204조 1항은 2권의 첫 번째 조항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되도록 소명 받은 자들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삶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고단할 때가 많으며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느님께 받은 소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은 성당 안에서만 느껴지며,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공간이나 여유를 찾기란 대단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그분은 마치 방관자처럼 느껴집니다.

로마의 예수 성당에서는 미사가 끝날 때마다 ‘Ad maiorem Dei gloriam’(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늘 부릅니다. 코린토 1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일이나 어려움이 그분의 지체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의 자아실현과 삶의 계획들의 성취는 각자 고립된 ‘나’로서 내리는 결정들로 계산되는 결과가 아니며 반대로 그 무엇보다 이는, 높은 데서 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의 길잡이로서 함께해주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온전히 신뢰를 보내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찬미’를 드리자고 하십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난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심정현 요한 드라살 부제 |



제 1 독 서 사도 2,14-36-41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서 1베드 2,20-25
복 음 요한 10,1-10



기억할 선종 사제
이재철(아드리아노) 신부
2006년 5월 3일

예수성심과 성모신심의 터전 중 앙 동 성 당

황광지 가타리나



성모동산은 신앙의 샘터

중앙동성당이 자랑하는 성모동산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동산의 중심인 성모당, 레지오 마리아 기념비, 십자가의 길 15처이다. 성모당은, 루르드 성지를 본떠 모셔진 성모님과 성녀 벨라멧다의 기도손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동산의 심장처럼 놓인 이곳은 두근거리며 포근하다. 때로는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여 세속에 묻든 영혼을 행구게 한다. 역사도 깊어 1952년 10월 묵주기도성월에 당시 대구 대교구장 최덕홍 요한 주교 집전으로 성모당 축성식을 가졌다. 1991년 5월 성모성월에는 새 성모님을 모시고 새롭게 조경공사를 하고 축성식을 했다. 마산교구에서 가장 먼저 1956년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한 중앙동성당은 2003년 10월 성모동산에 레지오 마리아 기념비를 설치했다. 당시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올리고 묵주기도의 밤을 성대하게 치르며, 다가올 레지오 탄생 50주년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 본당의 레지오 역사가 곧 마산교구의 역사였다. 1992년 3월에는 사순절을 맞으며 동산에 십자의 길을 설치하여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성모동산은 중앙동성당 신앙의 샘터가 되어 신자들의 신심을 새롭게 할뿐만 아니라, 이 힘이 전해지역의 곳곳으로 싹틔줄처럼 전해지는 것이리라.

진해공소에서 중앙동본당으로

1930년 대구대교구 소속 완월동본당 관할로 진해공소가 설립되었다. 그 후 경화공소로 변경되었다가 1946년 4월 10일 진해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일본 사찰이었던 안국사와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본당을 꾸려나갔다. 본당주보는 '예수성심'으로 정했다. 발 빠르게 수녀원 분원도 설치하고 전교수녀도 파견되었다. 1949년 12월에는 부설로 성심유치원을 개원하여 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독지가와 신자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안국사 절을 헐어내고 성전 건립이 이루어져, 1957년 8월에 드디어 봉헌식을 거행했다. 1965년 12월 경화동본당이 신설 분리되면서 진해본당은 동명에 따라 '중앙동본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대구대교구에서 부산교구 소속이었다가, 1966년 마산교구가 설립되어 중앙동성당은 20년 먼저 써 온 역사로 교구의 넉넉한 힘이 되었다. 유치원 교육이나 레지오 마리아 활동 등이 마산교구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79년 1월에 여좌동본당이 설립되어 기성회를 조직하고 본당 분리에 또 한 번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본당의 내실을 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으로 본당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연례회도 창립했다. 술한 브레시디움 창단이 이어졌고, 1988년 7월에는 상급기관 꼬미시움 승격이 있어 그야말로 레지오 마리아 도입지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1990년대에는 여러 신심단체를 정비하고 개편하여 본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2000년대에는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맞는 때인지라 성모당을 정비하였고, 신앙 대회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했다. 2016년 9월 본당설정 70주년 기념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그러나 점차 신자가 줄어들어 그해로 보좌신부 재임은 끝나고 주임신부 혼자 사목하기에 이르렀다. 꾸리아가 해체되고 브레시디움 통폐합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꼬미시움과 브레시디움 18개로 여전히 성모님 군단은 힘차다. 현재 정철현 바오로 주임신부와 한국 순교복자회 수녀 세 분이 본당과 성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만나의 집

진해지역 무의탁 어르신, 행려자, 막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려고 했다. 1993년 6월에 설립된 무료급식소 만나의 집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30분부터 배식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100여 분에게 성심을 다하려는 노력을 한다. 운영은 창원시 진해구청의 지원과 지구 본당들의 보조금, 그 밖의 후원금으로 이루진다. 중앙동성당 신자들의 봉사는 물론이거니와 진해지구 각 본당 신자들의 봉사나 종교를 초월한 지역봉사단체의 봉사가 있기에 이 일이 지속될 수 있었다. 한 끼의 나눔으로 하느님 사랑을 따르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는 일이다. 무료급식소에는 이미 다른 역사가 있었다. 성모님과 함께하고, 예수성심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본당초기 1958년 우유급식소를 설치하고 극빈자 1,000명 점심 급식을 했다고 전한다.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만나는 오늘날 중앙동성당에서도 사람들을 먹이며 살리고 있다.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배출한 성소의 터전

중앙동성당의 무엇보다 큰 자라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엄청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출신 사제들을 꼽아보는 것도 본당의 역사를 헤아리는 것처럼 자긍심을 갖게 한다. 1965년 부산교구 소속으로 서품된 이억민 바오로, 1966년 마산교구장 김수환 주교로부터 첫 서품된 김석좌 베드로를 비롯하여 현기호 시몬, 구병진 베드로, 서정술 프란치스코, 강영구 루치오, 최영철 알폰소, 이제민 에드워드, 박승룡 클레멘스, 구성진 율리아노, 황병석 파스칼, 백남국 요한, 박상용 아우구스티노, 1992년 한꺼번에 세 분 정현태 타대오·이원태 클레멘스·백남해 요한보스코, 이상원 베네딕도, 주용민 리노, 그리고 10년 만에 2009년 오은규 요한보스코로 이어져, 이강현 베드로, 조우현 요한, 정재덕 안토니오 신부까지. 22명의 사제들이다. 이 신앙의 터가 놀라울 뿐이다. 본당에 부임하여 사목하는 사제들의 씨 뿌림으로 열매 맺은 출신 사제들은, 또한 이 본당의 주춧돌로 배곡하게 박혀 힘을 지탱하고 있다. 출신 수도자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곳곳의 수도회에서 소임을 다하며, 또한 이 본당의 주춧돌로 힘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성모동산에서 솟아나는 신앙의 샘물은 예수성심의 도움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축축이 적혀주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20년 노동절 담화문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

모두 두려워 문을 닫아걸고 있을 때에도 오염된 세상 한가운데서 온종일 목숨을 걸고 땀 흘리는 이 거룩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들 잠든 이른 새벽,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계단을 숨 가쁘게 오르내리다 쓰러진 그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짊어졌던 짐은 쌀 포대였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목숨을 바친 성찬의 삶입니다. 힘겹게 몰아쉬었을 그 거친 숨결은 가혹한 고용 사회에서 과로에 시달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적 호흡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동력은 비인간적인 삶을 견디며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못에 찢긴 아물지 않은 손으로 숯불을 피워 몸소 제자들의 아침밥을 해 먹이시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 지체인 가난한 노동자들의 상처투성이 손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십니다.(요한 21,1-14 참조)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사재기가 벌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배송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고강도 노동이 분명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95항 참조)

비좁은 책상에서 일하며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했던 콜센터 노동자의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의 슬픈 노동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콜센터는 옛날의 공장과 똑같고, 변하지 않은 것은 낮은 임금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뿐이라는 어느 여성 노동자의 통찰은 아리도록 날카롭습니다. 50년 전 청계천 평화 시장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생태 위기와 재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 내는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과 일자리는 인간 존엄의 근본 토대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에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가정의 생계와 한 가족의 생존을 짊어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우리 교회가 품어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폐기의 문화야말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집단 감염원임을 기억합시다.

국가 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호는 ‘고통 분담’이지만, 그 고통을 ‘전담’하는 것은 언제나 삶의 벼랑으로 내몰린 가난한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야만적 자본의 논리는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경제 독재이고 새로운 우상입니다.(『복음의 기쁨』, 55항 참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 농민과 여성을 외면한 노동 운동은 무자비한 자본 권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 도리어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노동자들의 참된 연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교회는 언제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연대합니다. 목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이 세상 노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2020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